



### ‘손님 폰이라며 충전 부탁’ 증언에 대법 “택시기사 무죄”

1심, 증언 근거로 무죄→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  
대법 “직접심리한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어선 안돼”

손님이 떨어뜨린 고가의 휴대전화를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손님 휴대전화라며 충전을 부탁했다’는 1심 증인의 진술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형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2월 28일 자정께 피해자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시가 96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다른 승객이 주워 건넸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6차례 정도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같은해 3월 2일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한 김씨는 휴대전화를 돌려주려 보관 중이었고, 기기가 특이한 건지 잠금이 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은 김씨가 그해 3월 1일 오후 이발소에 와서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인데 충전해달라’고 했지만 충전기와 안 맞아 해주지 못했다는 이발소 주인 진술을 근거로 “김씨가 휴대전화를 취득해 제 것으로 만들 의사가었다면 이런 말을 하거나 충전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휴대전화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충전기로는 충전할 수 없고, 화면을 켜는 방식도 달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쓰기가 쉽지 않아 휴대전화 충전과 부재중 전화, 문자메시지 확인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휴대전화에 당시 잠금장치가 돼있지 않았고, 김씨가 경찰 연락을 받고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며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 심리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특성, 김씨 연령, 휴대전화를 보관한 이후 보인 김씨 행동에 비춰볼 때 김씨가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돼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가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발소 주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운행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지 않던 건 사실이나, 이를 고의로 삭제했다고 해도 이 사건을 이유로 삭제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설명한 사정은 1심이 이발소 주인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가치를 인정해 내린 판단을 뒤집을 만큼 특별하거나 합리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광주예술고 사설학원 강사 검직 ‘불가’

### 광주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정 시민단체 “교육 공공성 높이는 계기될 것”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사설학원강사의 광주예술고등학교 검직이 불가

능해진다.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검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광주예술고는 그동안 전문교과 강사 중 미술·음악·무용계열 등의 전공에서 학원강사를 채용해 논란이 됐다.  
2018년에는 전공교과강사 총 129명 중 미술 11명, 무용 2명, 음악 2명 등 15명(11.6%), 2019년은

126명 중 미술 11명, 무용 2명 등 13명(10.3%)이 학원강사였다. 2년간 255명 중 학원강사 28명(10.9%)이 실기지도한 셈이다.  
학원강사 채용이 법규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등 시대 흐름에 뒤쳐진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시민모임은 “예체능 관련 학원과 교습소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이라면서 “공교육기관이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시교육청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은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검직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무부서에 요구해 지침을 개정했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며 “광주예술고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 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 경자년 쥐 조형물 신기하네  
포항시 문화재단이 29일 오후 2020 해맞이 축전이 열리는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 광장 상생의 손 옆에 경자년을 상징하는 쥐 조형물을 설치했다.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조형물은 2.7m 높이로 동해 바다에서 떠오른 태양에 반짝이도록 설계됐다.

### 인천 ‘현대판 장발장’의 진짜 모습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현대판 장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모 방송매체 ‘궁금한 이야기 Y’에선 이들 부자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인천 장발장 부자 이야기의 속사정을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의 한 직장 동료는 제작진에게 ‘내가 아는 그 형은 99% 연기다. 애가 아픈데 병 원비가 없다고 해서 10만원 빌려줬는데 토토키임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전 직장동료는 “차를 세워 놓고 잠이 들었는데, 만원짜리가



다”라고 주장하면서 손님의 휴대 폰을 챙긴 것에 대해선 “부수임이다. 그건 잘못된 거 인정한다”라고 시인했다.  
또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135만원이 나온다. 어려운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은 몰

동료 “아이 병원비 없다 10만원 빌려 갔지만 토토키임 해”  
전 직장 “도둑 성향 있어...회사 옮기며 미입금 시키고 도망”

다 없어졌다”라며 “블랙박스에는 A씨만 찍혀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를 두고 “지금은 택시 못하는 게, 회사마다 미입금이 있다. 내가 듣기로는 안 받아줘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근무했던 택시회사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영수증 앞의 숫자를 바꿨다”며 “도둑 성향이 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고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미입금시키고 도망가 버리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친구들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쪽으로만 올려놨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제작진에게 토로했다.  
이어 “사납금은 내려고 노력을 한다. 내가 돈을 때리는 게 아니

라고 주장하면서 손님의 휴대 폰을 챙긴 것에 대해선 “부수임이다. 그건 잘못된 거 인정한다”라고 시인했다.  
또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135만원이 나온다. 어려운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은 몰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 조기 발견, 자립치료 중인 민척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인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